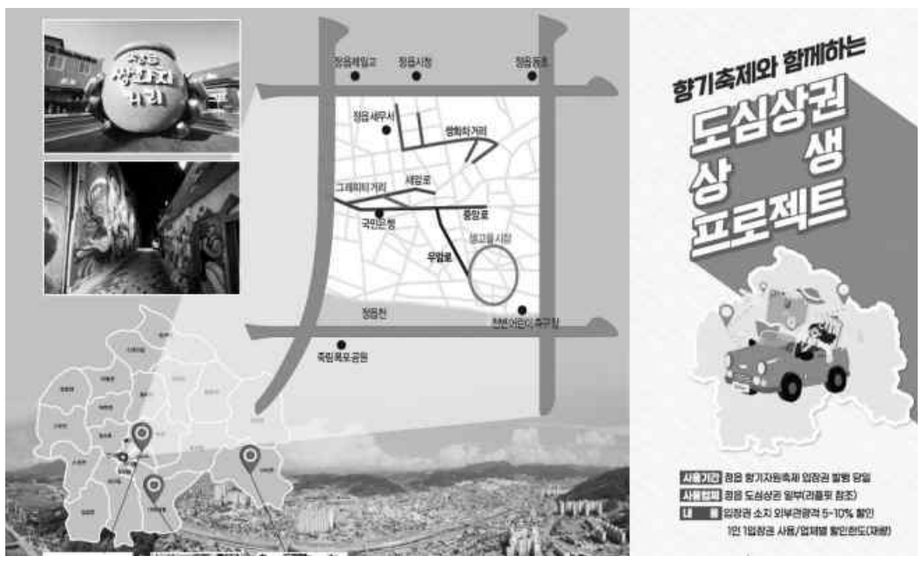
관광객엔 혜택을, 골목상권엔 활력을

정읍시 도심 상권 상생 프로젝트
향기 축제 입장권 소지 관광객
식당·미용실 등 5~10% 할인

정읍시가 관광객에겐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골목상권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정읍시와 구도심 상권 상가협의회는 구절초와 단풍, 라벤더 축제 입장권을 가진 사람에게 도심 상가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주는 '도심 상권 상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대표 향기 축제인 구절초·단풍·라벤더 축제 입장권을 소지한 외부 관광객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것. 이에 따라 축제 기간 입장권을 제시하는 외부 관광객들은 지역 내 식당, 의류매장, 이·미용실 등의 상점을 5~1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도심 상권 상생 프로젝트' 계획도.

이번 프로젝트에는 '샘고을시장상인회', '중앙상가발전협의회', '새암길상인번영회', '우암로번영회' 등이 참여한다.

참여 단체들은 정읍을 방문하는 외부 관광객들에게 도심 상가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시가지로 유인해 관광 소비를 촉진,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더 많은 관광객이 정읍의 '맛'과 '멋'과 '향'을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 상생발전을 이끈다는 복안이다.

시는 도심 상권 상생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 정읍시 홈페이지 게재 및 홍보물을 제작해 행사장에 비치하고, 축제 관람객이 관련 업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또 입장권 소지자에 대한 할인 혜택을 더 확대하기 위해 시내 숙박업소와 레저문화 시설 등을 계속 모집해 나갈 방침이다.

자세한 할인 내용과 대상 시설은 정읍시 홈페이지 또는 축제 행사장에 비치된 홍보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용관 성장전략실장은 "향기 축제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 결과, 외부 방문객들의 도심 상권 유입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광 소비패턴에 걸맞은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익산시, 지역화폐 연계 '다이로움 택시 앱' 출시

호출료·별도의 수수료 없어

익산시가 익산 지역화폐 다이로움과 연계한 택시 호출앱 '다이로움 택시'를 출시해 다음 달 2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다이로움 택시는 호출료가 없어 다른 택시앱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택시기사에게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다이로움 택시 앱 설치, 쿠폰 코드 입력, 친구 초대 시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자동결제 시에는 마일리지가 2%씩 적립된다. 지역화폐 다이로움과 연계해 택시 요금을 결제할 경우에는 결제금액의 10%를 돌려주는 페이백 혜택도 제공된다.

이용객들은 '승객 선호 옵션 기능'을 통해 택시기사에게 미리 요청 사항을 전달할 수도 있다.

지난 16일부터 체험 운영 중인 다이로움 택시는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또는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이용할 수 있다.

황희철 익산시 교통행정과장은 "기존의 서동콜과 보석콜이 다이로움 콜센터로 통합돼 보다 편리한 교통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남원시 '내수면 양식장 불법약제' 합동점검

남원시가 양식장에서의 미승인 물질 불법사용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남원시는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와 합동으로 내수면 양식장을 대상으로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사용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와 수산기술연구소는 양식장 9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효기간, 의약품 적정 저장·보관, 구매·사용기록 준수 여부 ▲휴약기간, 처방전, 출하제한지시서 준수 여부 ▲미승인, 품목허가 취소 및 유해 화학물질 사용 여부 등이다.

또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수산용 의약품 안전사용 기준 현장 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후 재발 방지 계도를 실시하고 양식장에서 미승인 약품 보관·사용 등 위법사항 확인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군산시,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 선정
2026년까지 170억원 예산 확보

군산시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기술선도형 분야 공모에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6년까지 5년 동안 국비 100억원 등 총 17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오식도동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본부 인근에 LPG, 암모니아, 바이오디젤, 하이브리드와 같은 저탄소·무탄소 대체연료 추진 시스템 핵심 기자재 성능 검증을 위한 육상기반 실증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양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지난 2018년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2050 국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해운 분야에서 선박배출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2018년 대비 70%인 30만7000t을 감축해야 한다.

현재 국가적으로 LNG기술을 보유했으나, 저탄소 대체연료 선박 관련 연구개발은 초기단계로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실증 플랫폼 선점을 통해 지역 조선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이번 선정된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이미 구축된 인프라와 연계해 친환경 연료 핵심기술 및 핵심 기자재 시험평가를 위한 장비를 완성하게 되어 구축 장비 연계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선도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앞서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총 197억원의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아 2020년말 국가산업단지 내 오식도동에 중소형 선박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를 건립해 선박 기관부의 보조기계 분야, 의장부의 항해 기기·화재 및 안전설비 분야의 17가지 기자재의 품질 고도화를 위한 시험·연구지원 인프라를 구축한 바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역 기업에 관련 분야 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술을 보급하고 중소형 친환경 선박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신기술 품질개발과 기술보급을 통한 기업유치를 통해 친환경 선박시장의 선점 등 군산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순창군보건의료원 아이 오감발달 놀이 교육

다음달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순창군보건의료원이 아이와 엄마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오감발달 놀이 교육을 진행한다.

오감발달 놀이 교육은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로 온몸을 이용한 즐거운 체험으로 건강한 신체를 만들고 창의력, 사고력, 잠재능력을 이끌어 내는 감성 체험 온몸놀이 교육이다. 〈사진〉

오감발달 놀이는 영유아 오감을 자극해 영유아의 신체 및 두뇌 발달을 촉진하고 엄마와 아기의 상호 간 접촉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감발달 놀이 교육프로그램은 다음달 3일부터 진행하며 행복누리센터 해피니스센터 1층 교육실에서 8~12개월반은 오전 10시~11시, 13~20개월반은 오전 11시~12시 까지 매주 금요일 각 10회씩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 접수는 네이버 해피니스 카페나 전화상담을 통해 선착순 12명씩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신생아부터 만 2세 영유아가 또래들과 친밀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되므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고창군, 한우개량·품질고급화로 명품한우 육성

13개 사업에 7억3000만원 투입

고창군이 올해 한우 개량과 품질 고급화를 통한 명품한우 육성에 주력한다.

고창군은 한우 개량과 품질 고급화를 통한 고급육 생산을 위해 13개 사업에 7억3000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한우 개량의 기본인 우량 정액 지원과 수정란 이식, 등록 및 선형심사 등을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다. 그 결과 고창산 한우의 고급육 출현율이 2016년 68%에서 지난해 77.7%로 꾸준히 향상되면서 지역내 한우 사육농가의 자긍심 향상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고 있다.

또 씨수소 중심의 개량체계에서 암소를 개량하는 암소유전형질개량사업, 암소축군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우수한 혈통이 보전·유전되도록 암소 개량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고창군은 고령화 및 일손 부족에 따른 한우 농가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배합사료 자동급이기, 한우헬퍼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박동열 고창군 축산진흥팀장은 "명품 한우 산지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